

“와서 보시오” 행사에 관한 실행계획, 개요 및 발표를 위한 주제에 대한 추천

당신의 형제회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자 하며, 회원들은 “와서 보시오” 행사를 주최하고자 할 것이다. 많은 성공적인 형태가 가능하다. 본 자료에서는 본 행사를 계획하고 조직하기 위한 제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사항들은 본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당신의 형제회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만들어 보라.

1. 행사 사전계획

적어도 6개월 이전에 행사 계획을 시작한다.

- 날짜를 확정한다.
- 장소를 마련한다.
- 안건 (개요와 발표주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추천)을 개발하고, 각 안건에 대한 할당 시간을 포함한다. 본 행사에 대한 시간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것은 하나의 소개하는 행사이다. 하루 오후나 저녁 시간에 3년 전체 내용을 포함 시키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각 주제에 대한 발표는 1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도와 정보제공 부분은 행사 후의 만남의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발표자에게 안건을 배정하고, 담화 내용에 대하여 준비하고 연습하도록 해야 한다.
- 본 행사를 광고한다(게시판, 설교 시 발표, 교구 신문 및 행사 날짜 등을 기록한 명함등 활용).
- 필요하면 음향 및 영상 설비를 준비한다.
- 각 회원에게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요청한다.

2. 행사 당일

- 준비하기 위하여 일찍 도착한다.
- 참가자들을 행사장으로 안내할 수 있는 표시판을 부착한다.
- 방문자들을 환영할 수 있는 방명록과 서명 책상을 준비한다.
- 간식과 음료, 음향 및 영상 장비를 설치한다.
- 발표자들과 행사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한다.

3. 행사 후

- 참석했던 사람들과 계속 연락한다.
- 참석자들을 정규 모임에 초대한다.
- 향후 단계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 설명한다.

안건 제안

기도/환영사

- 당신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길로 인도되었다.
- 800년 이상 지속하여 온 전통 속에 우리는 함께 모여 있다.
- 회칙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들고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도권에 의해 승인되었다.
-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생활에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으므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간단한 몇 개의 모임을 갖게 될 것이다.
-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소명"에 관한 대화 - 신앙을 더 깊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 프란치스칸 은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프란치스칸 가족에 대해 소개를 한다.

큰 그룹이나 소 그룹 모임의 주제

- A. 소명.
- B. 프란치스칸 가족.
- C. 프란치스칸 은사(Franciscan Charism).

(발표주제에 대하여는 2 - 4 페이지 참조)

친교의 시간 -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말아서 한다.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씩 나누도록 해야 한다. 방문자들에게 이 모임에 오게 된 경위와 동기에 관해서 물어본다.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듣고 당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 당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 바란다.

1.800.Francis@mail.com.

이러한 자료들은 당신들의 피드백으로부터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를 위한 주제들(Fun manual 에서 발췌)

아래에, 참석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을 제시해 놓았다. 이것은 교재로 쓰기 위함이 아니다. 발표자들이 이 주제들을 검토해 보고 자신들의 마음으로 부터 말할 수 있게 격려하기 위함이다. 단지 발표자들의 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일 뿐이다.

A. 성소 (Maria Amore, OFS 의 "성소-하느님의 부르심" 에서 참고)

1. 성소는 무엇인가?

- a. "부르심" -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가는 것.
 - b. 사제, 부제, 수녀들 혹은 수도자들만을 위함도 아니며,
 - c. 결혼한 이들만을 위함도 아니다.
2.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신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다.
 3. 복음의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강조하여 말한다.
 4.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에 세워진 회이다.
 5. 재속 프란치스코회란?
 - a. 재속 - 세상 안에서 (서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 b. 프란치스코인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와 교황을 따르는 자들.
 - c. 회 - 같은 종교, 도덕심 혹은 사회적 규율이나 회칙 아래 공동체로 생활하는 단체나 사회.
 6. 재속 프란치스코인은 매일 재속 신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7. 기도와 활동/프란치스코와 클라라
 8. 소그룹으로 함께함이 우리의 성소를 더 강하게 한다.
 9. 프란치스코 가족들의 "지도"(directed) 보다는 "조력"(assisted)이 우리가 프란치스코인의 길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10.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으신다.
 11. 양성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생활양식과 재속 프란치스코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
 12. 첫 단계는 이미 오늘 오셨지만 - "나는 관심이 있어 와서 보려고 합니다" - 라고 말함에서 시작된다.
 13. 다음 단계 - 봉사자나 양성장과 대화하고 성령께서 계속 당신을 인도하도록 한다.

인쇄물(Hand out)-형제회 관련카드와 NAFRA website, Face book, Twiter, 형제회 연락처.

B. 프란치스코 가족 (Robert Fitzsimmons, OFS 의 "프란치스코 가족- A Brief introduction" 참고)

물론 프란치스코 가족은 우리 주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큰 가족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에 의해 세워졌다.
 - a. 프란치스코는 죄인이었으며 기사가 되어 존경 받기를 원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평화, 자비, 기쁨, 사랑의 메시지를 따르고 싶은 이끌림 즉 깊은 회개를 경험 하였다.
 - b. 그의 여정은 오늘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생활양식을 전해 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프란치스코와 함께하기 시작하였다. - 1회 - 1209년 인준 - 작은형제들(오늘날의 작은형제회 OFM).

- i. 작은 형제회, OFMs
 - ii. 카푸친 작은 형제회, OFM Cappuchins
 - iii. 곤벤뚜엘 작은형제회, OFM Conventuals
 - iiii. 다른형제회, Others
- c. 성녀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가르침에 감화를 받았으나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2회가 창설되었다. - 1212년에 인준 - 가난한 자매회 혹은 지금의 가난한 클라라회.
- i. 가난한 클라라회
 - ii. 다양한 여러 회가 창설됨
 - iii. 봉쇄, 복음을 기초로한 관상 생활, 프란치스코의 전통인 기쁨과 단순-가난의 특전 안에서 기도와 회개 생활.
- d. 평신도들도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였다. 그는 사제는 아니었으나 믿음의 위대한 증인이었다. 프란치스코의 생활양식에 매료되었던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떠날 수 없었기에 떠도는 설교자나 봉쇄 수녀들 혹은 함께 하는 형제 -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 - 이 되었다.
- i. 프란치스코 3회, Third Order of St Francis – 재속 프란치스코 회로 바뀜 OFS
 - ii. 울수삼회, Third Order Religious (사제, 수사, 수녀들)
 - iii. 수도 3회, Secular Institute of Mary (SIM) 성모의 재속 수도3회

2. 모든 프란치스코 가족들은 그들의 생활 회칙을 준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해야 한다.

- a. 세 겹으로 된 끈처럼, 세 부분이 하나가 되어 프란치스코의 비전을 나누고 전파할 협조자로 함께 할 때 더욱 강해진다.
- b.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 함께하며, 서로 도우며, 좋은 부모로, 친구로,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복음선포를 하려는 같은 비전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인쇄물 : 프란치스칸 가족들 (한 면은 영어 번역, 다른 한 면은 스페인어 번역)

C. 프란치스칸 은사 (Benedetto Lino, OFS의 "재속 프란치스코 회의 성소, 은사와 사명"(page9-15) 참고)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선물이다. 우리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베네딕도, 켈거타의 성녀 데레사 등, 그들의 은사를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독특한 길에 대해 말한다; 삼위일체에 다가가는 길 ; 영성

생활에서 그들이 중요시 하는 것.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길에는 여러 길이 있다;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프란치스칸은 성 프란치스코의 은사를 생활 안에서 실현하도록 불림 받았기에, 우리는

1.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2. 우리 자신의 성격과 성향에 잘 맞는지 분별해야 하며;
3. 나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은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프란치스코의 은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적이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육화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하느님을 특별하게 체험했다.

프란치스코는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고자 그리스도 수난의 상처를 받기까지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 까지도 형제적 관계를 인식했다. 프란치스코 가족의 조직은 형제회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나눔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프란치스코의 겸손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는 육화의 신비를 깨달음에서였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을 깨달음에서였다.

프란치스코의 은사로 오늘을 살아간다 함은, 프란치스코의 생활양식으로 하느님께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 매우 열정적인 성체성사 생활 (하느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에 초점을 맞추며).
- 가난 (육화 안에서 자신을 비우시는 하느님을 본받아).
- 겸손/작아짐; 섬기려하며, 섬김을 받지 않으며.
- 단순함.
- 순종(아버지의 뜻에 따라).
- 자선.
- 형제애(프란치스코의 은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 완전한 단순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름.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영성의 길은 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살아진다.

묵상하기 위한 질문들

1. 위에 제시된 프란치스칸 영성의 요소 중 당신에게 공감이 되는 요소는?
2. 어느 요소가 당신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가? 왜 그런가?

필요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쇄물 (선물)

산 다미아노 십자가

1.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2. 유년시절에는 부유한 특권층의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처럼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성인이 될 무렵, 인생의 큰 위기를 맞으면서 삶의 깊은 의미를 찾게 되었다.
3.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그를 고향 아씨시에 버려진 산 다미아노 성당을 찾게 하였다.
 - a. 바로 여기 산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프란치스코는 처음으로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세우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셨다.
 - b.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씨시의 허물어진 교회들을 고치기 위해 서둘러 모금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응답을 하셨다. 그러한 노력으로 많은 성당과 경당을 복원하셨다.
4. 그 후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단순히 성당과 경당들을 복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산재한 하느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재건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a. 프란치스코는 가난, 기도와 봉사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 b.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5. 성 프란치스코에게 십자가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기에 우리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기로 합시다.
 - a. 성상 십자가(Icon Cross)는 그리스도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관련된 현장의 많은 분의 성상도 그려져 있다.
 - b. 이 십자가는 호두나무에 그려졌는데, 높이 75인치, 넓이 47인치, 두께 약간 부족한 5인치.
 - c. 이 원형의 십자가는 아씨시에 있는 성 클라라 대 성당에 걸려져 있다.

6. 상징 – 십자가에 내포된 모든 상징을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은 없으나 - 중요한 부분만 여기서 이야기 합시다.
 - a. 당신은 이 이미지에서 무엇을 알아냈는가?
 - i. 십자가 성상에 있는 모습들 – 성서에 나오는 분들이다.
 - ii. 중심이 되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1. 눈을 뜨고 계심 – 살아계신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다.
 2. 똑바로 서 계시다.
 3. 피를 흘리고 계시다.
 - iii. 승천하심.
 - iiii. 하느님의 손.
 - v. 성모님과 사도 요한.

나누어 줄 인쇄물 예 – 산 다미아노 십자가의 거룩한 카드

타우 십자가 –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상징 타우, 거룩함의 상징

1. TAU (타우), 거룩함의 상징

- a. 에제키엘 9, 4, “예루살렘 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지른 잘못을 슬퍼하고 참회하는 이들의 이마에 “타우”를 그어주어라”.
- b.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으로 “T”자와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
- c. 1215년 11월 11일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이노첸토 III 세는 “내가 이 과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루카 22,15)의 말씀으로 공의회를 시작하였다 .
이노첸토 교황은 당신 자신과, 교회와,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원하며 타우 십자가가 과월절을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하셨다.

2 성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 공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 a. 프란치스코는 이 공의회에서 교황 이노첸토 III 세의 말씀 “타우는 우리 주님께서 갈바리 산상에서 못 박히신 십자가와 똑같은 모양이며, 육신의 고행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삶과 일치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님 자비의 상징이다”를 들었을 것이다.

- b. 그 이후에 타우는 프란치스코의 문장(Coat and Arms)이 되었고 자주 그분의 글에 자신의 서명으로 사용되었다.
3. 프란치스코는 타우를 어떤 상징들보다도 더욱 좋아하셨다.
 - a. 모든 서한에 유일한 싸인으로 쓰셨고, 성인이 머무셨던 곳의 벽에 그 이미지를 그려놓으셨다.
 4. 타우는 모든 프란치스코 회원들과 소속된 다양한 수도회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5. 타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프란치스코의 삶의 이상과 그를 따르는 후계자들의 꿈을 지니고 있다.
 6. 타우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고유한 상징으로 정해졌다.

다음 카드를 모두에게 선물로 나누어 줄 것--프란치스코께서 양피지에 쓰신 유명한 레오 형제에게 주신 축복

“주님께서 형제를 강복하시고 보호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돌리시어 평화를 주소서. 주님께서 레오형제를 축복하소서”.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의 머리를 그리시고, 그 그림 위에 타우를 표기 하셨다.